

2024년 3월 3일 “(아바드의 사람들 8) 두려움을 넘어서다”(룻 1:14-17)

인생 고비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삶을 가꾼 아바드의 여인,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1] 룻과 나오미

사사시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슬프게도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자,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곧 죽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유다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 땅에 남아서 새 삶을 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v.16-17).

룻은 자기 시댁 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은혜와 능력을 듣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런 하나님께 투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2] 결단 후 펼쳐지는 인생

베들레헴에 온 룻은 사람과 언어와 율법이라는 사회 법과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생소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생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기억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 밑에서 이삭줍기를 하여 생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삭줍기는 수확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줍게 하는 율법의 사회적 배려입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하여 보아스와 룻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룻은 자신과 어머니를 합법적으로 빈곤에서 건져주고 가정의 명예까지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을 경험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땅을 사주고 그 땅이 자기 가족 이름으로 남겨지도록 기업을 무르는(고엘 제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삶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룻은 적극적인 순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혼 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낙심할 만했지만 하나님께 투신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맞닥뜨렸습니다.

만일 나쁜 사건이나 나쁜 사람이 우리 상황 속에 개입되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간파하고 극복해야 함을 알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더 나쁜 상상과 시나리오를 지어냅니다. 두려움을 일으킨 사건 자체보다도 더욱 부풀려진 부정적 상상과 비약이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면 극단적으로 화를 내고 낙담하다가 결국 모세를 원망하며 자기들을 죽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약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두려움에 휘말리는 것도 사람의 연약한 습관입니다. 우리 공동체(직장, 교회, 가정...)에서 누가 잘못하거나, 불운이 일어나면, 망하거나 큰 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면 부정적 연사와 불안으로 주변의 동의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룻이 만일 두려움에 휩쓸린 사람이었다면 룻기는 시작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룻은 하나님을 붙들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탁하여 삶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요, 예수님 족보를 잇는 구속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삶의 정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겨 내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 내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룻을 통해 내가 배우는 인생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룻을 보면서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2. 두려움이 거의 모든 인간 문제의 근원에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나의 삶에서 발견한 두려움의 이슈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겠습니까?